

기고

민생 위협하는 전세사기 경찰 특별단속 나섰다

박지민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경찰은 국민체감 약소 1호 '악성사기 근절'이라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검거 인원인 243명 대비 8배 증가한 194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경각심과 민생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7월 25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빌라왕'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 사기는 국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뾰족한 구제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사기 범죄들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뉴스에 보도된 사건들을 알고 있다 해서 다른 유형의 사기를 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무자본·갭투자 ▲강동전세 ▲선순위 권리 등을 숨긴 채 계약 체결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하위보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이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지식 및 법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중개 및 감정 행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계약 시 정상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7. 24까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쓰임 받는 그릇 같은 인생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찬장 안에는 수많은 그릇이 있다. 모양에 따라 크고 작은 그릇, 재질에 따라 금 그릇 은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다. 이러한 그릇은 연중 주인의 선택에 따라 쓰이고 있으며 날마다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일 년을 통해 한 번도 쓰이지 않고 보관된 그릇이 있다.

그릇이 쓰인다는 것은 주인의 필요한 선택에 따라 쓰이고 있으며 선택되지 못한 그릇은 그릇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소중한 그릇은 재질과 모양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인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냐 중요하다.

날마다 주인으로부터 선택받는 그릇은 항상 깨끗하고 속이 비어있으며 자주 쓰임에 불평하지 않는다. 비록 못 생기고 작고 재질이 낮은 질그릇 일지라도 쓰임을 많이 받는 그릇은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찬장 안의 그릇처럼 잘난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재산이 많고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허약한 사람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처럼 인생은 물질, 재능 시간, 건강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선하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사회를 위해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소유보다는 쓰임이 더 중요하다. 쓰임 받지 못하는 금 그릇보다는 많이 쓰임 받는 질그릇이 더 우대받는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선

택기준에 맞아야 한다.

첫째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속을 비워야 하며 둘째는 항상 오염되지 않고 깨끗해야 하고 셋째는 스스로 돕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함을 뜻하며 양심에 따라 일하는 것을 뜻한다.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처럼 일 년을 통해 한 번도 주님의 쓰임을 못 받고 한 해를 넘긴다는 것은 불평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의 선택기준에서 벗어난 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소중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며 쓰임 받고 고생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쓰임 받고 하는 일을 항상 은혜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야 한다.

사람이 사는 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며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하며 고생하는 것은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임을 알고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쓰임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소중하게 쓰임 받는 인생 그릇이 되어야 한다. 계묘년 희망찬 새봄을 맞이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쓰임 받아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일을 하여 자랑스럽고 보람찬 실적을 남긴 인생이 되었으면 한다.

기고

건조한 날씨에 잦은 산불...소중한 산림 우리가 지켜야

이병용 함평군부군수

지난 11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이 91ha에 이르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입히고 진화되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특수·전문진화대 및 공무원 등 2천270명을 투입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 59대, 소방차·산불진화차 등 104대를 투입하여, 23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최근 전국 각지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는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였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으로 다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산불은 생활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소중한 삶의 터전과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어, 항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함평군에서는 2023년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함평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입산금지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산불 대응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0명, 산불감시카메라 14대 등을 운영하여 조동 진화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두가 산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하기 전 성냥, 라이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도 금물이다. 취사나 모닥불은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혹시나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산림청,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립관리소 등 산림과서에 신고해야 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눈, 발,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옆드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에는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한다.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혹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대피 장소로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눈,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이 좋다. 또한 산불 발생 단계에 따라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산불은 아픔담고 푸른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이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율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경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